

삶의 현장에서 환자들과 함께하는 보건서비스

- 「고혈압 관리, 치료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한 파주시 월롱보건지소를 찾아서 -

“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상이 없어 환자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지식과 관리법 등을 알리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한 고혈압 관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고혈압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률은 20%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병이다. 고혈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증상이 없어 환자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기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지식과 관리법 등을 알리고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한 고혈압 관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다.

이번에는 매년 국민 고혈압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의 고혈압 관리 및 치료 우수사례 응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주시 월롱보건지소의 노인정 방문진료 현장에 찾아가 보았다.

‘작지만 큰’ 월롱보건지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위정리에 위치한 월롱보건지소는 의과를 담당하는 김경원 지소장과 한방치료 담당의 이명규 한의사, 보건직 공무원 강은주, 김성숙씨 등 4명의 의료진이 꾸려가고 있다. 월롱면은 총 인구 7,000명의 작은 시골마을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특히 높아 파주시 보건소 차원에서 따로 방문보건센터를 설립하여 많은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보건지소에서 시행



▲ 월롱보건지소 의료진

하는 각종 방문진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월롱보건지소에서는 보건지소 내원 환자 진료, 능산 2리 노인정 방문진료를 비롯한 지역별 이동진료 등의 고혈압 관리사업과 예방접종 및 각종 일차진료 등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롱보건지소의 노인정 방문진료는 7년 전 교통편이 불편해 보건지소에 내원하기 힘든 마을들을 대상으로 노인정에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진료한 것

매

년 국민 고혈압 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고혈압 관리 및 치료 우수사례 응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주시 월릉보건지소는 매달 노인정 방문진료활동을 통해 '발로 뛰는 보건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 시발점이었다. 현재는 의과와 한방이 한팀이 되어 노인정을 방문하여 환자들이 고혈압 등의 의과진료와 침 등의 한방진료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김경원 지소장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이러한 의과-한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전했다.

2004 보건소 고혈압 관리 우수사례 공모 최우수상 수상



월릉보건소는 올해 11월 국민 고혈압 사업단이 시행하는 보건소 고혈압 관리 우수사례 응모에서 '노인정 방문진료사업의 효과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에서는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치료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치료순응도: 진료 후 고혈압 지식의 향상 및 건강증진행위 실천의 정도'의 개념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의료진은 보건 대상환자군과 보건지소에 내원환자군 사이에 치료순응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의료서비스 만족도와 향후 보건사업에 참여할 의도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했다. 연구 결과 노인정 방문진료사업은 환자들이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환자들의 고혈압에 대한 지식수준과 건강증진행위의 실천률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방문진료

지난 12월 15일, 월릉보건지소 의료진의 노인정 방문진료에 동행했다. 월릉보건지소에서 차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여 도착한 능산 2리 노인정에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0명 가량의 노인들이 모여 의료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가운 인사가 오간 후 진료가 시작되었다. 혈당과 혈압, 평소 건강상태 점검과 더불어 노인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 노인정 방문진료중인 김경원 지소장

“ 월롱보건지소의 노인정 방문진료는 불편한 교통 때문에 의료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이 모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



“할아버지, 약도 좋지만 우선 술을 줄이셔야 해요.”
 “식사 거르지 마시고 다음 방문진료때도 꼭 오세요.”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진료가 끝나고, 김경원 소장의 고혈압 강의가 이어졌다. 김 소장은 “고혈압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중풍, 심장질환, 팔 다리 혈액순환과 신장 문제 등 많은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고혈압은 평소 관리가 중요한데,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고 혈압체크를 자주 해야 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에는 혈압이 상승하기 쉬우므로 실내에서 맨손체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가능한 한 싱겁게 먹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섭취하며 반주(飯酒)는 나쁜 습관이므로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 혈당 측정을 하고 있는 강은주씨

라고 강의했다. 강의가 끝난 후 노인들은 다과를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을의 일을 이야기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월롱보건지소의 노인정 방문진료는 불편한 교통 때문에 의료시설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주민들이 모여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지역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월롱보건지소 의료진의 모습은 참다운 ‘보건서비스’란 진료와 처방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기 위하여

김경원 소장은 지역보건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 평생 의사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병원을 떠나 노인정에 나가서 주민들




의 삶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방문진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보람차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과주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큰 불편은 없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소박하게 느끼는 문제점들이 몇가지 있다. 독거 노인이면서 자녀와 교류가 전혀 없는데도 집 한 채 지니고 있다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독거 노인들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아쉽다. 또한 마을버스조차 다니지 않거나 하루 2번만 다니는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신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듯 싶다”며 보건소 의료진으로서의 바람을 말했다.

이러한 의료진들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보완



▲ 월롱보건지소 의료진과 방문진료에 참가한 주민들

과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이 더욱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1차 진료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월롱보건지소의 방문진료현장 탐방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글 박혜선 기자

보건소 1차 진료안내

진료대상

- 의료급여 대상자
- 건강보험환자

진료가능범위

-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등) 및 각종검사(임상병리, 방사선) 및 물리치료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진료비

- 진료 및 처방전 교부 : 500원
- 진료상담 : 1,100원
- 검사 후 상담 : 2,200원
- 진료의뢰서, 진단서 발급 1,100원

진료절차

- 진료실 접수 → 의사진료 및 처방전 발급(2장)
- 민원실 수납 → 필요한 검사, 물리치료 실시 → 관내

약국

- ※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소에서 투약하지 않음